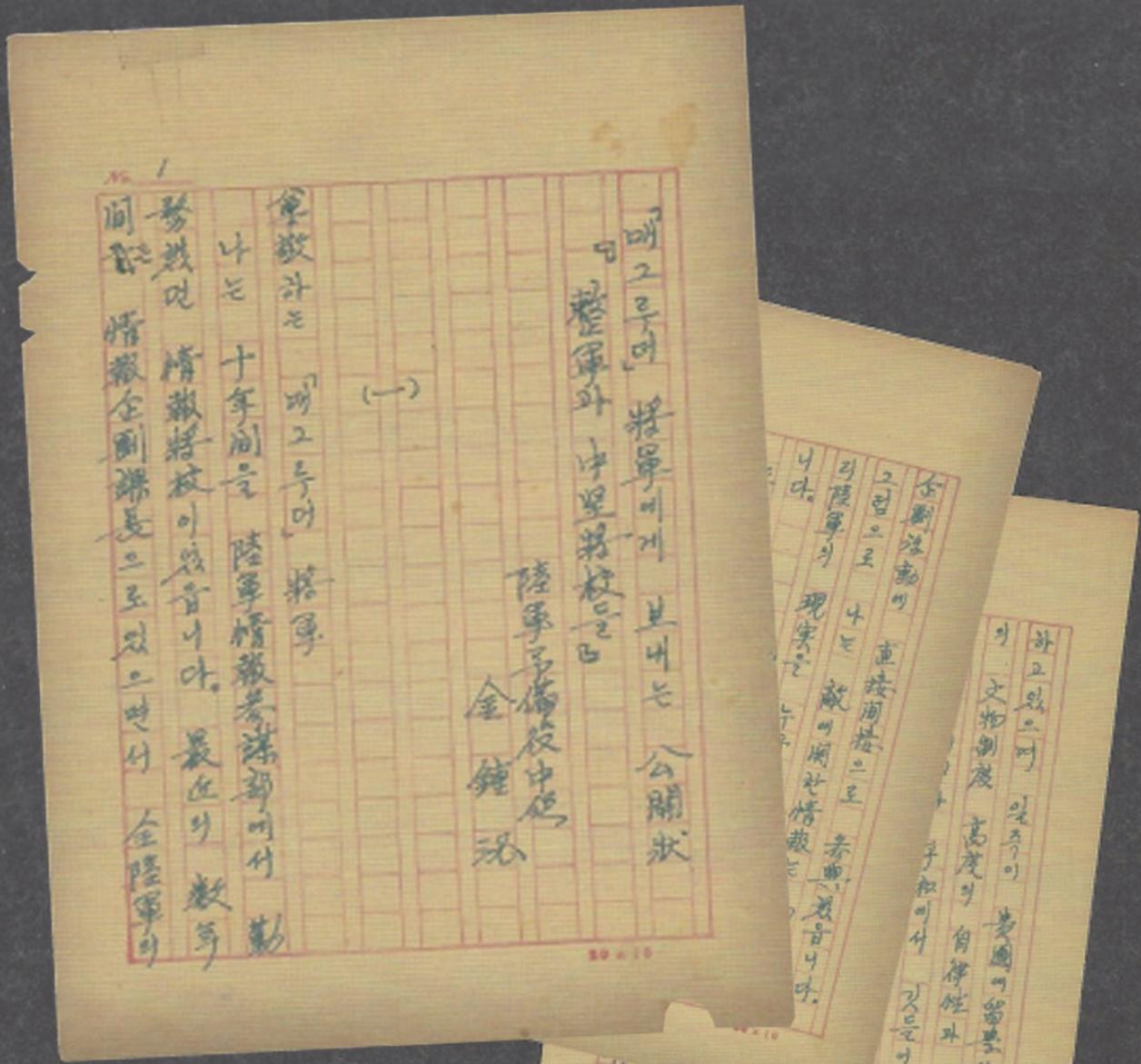


5.16 혁명, - 미국의 지지 담판



1961년 초 당시 정군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른 바 '하극상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강제 전역 당한 김종필 예비역 중령이 그동안 정군운동에 반대해 왔던 매그루더장군에게 친필 서한을 보내 한국군의 부패상을 낱알이 지적하며 정군운동의 당위성과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 후 혁명 거사에 적극 반대하며 혁명군 진압을 관철하려는 매그루더사령관과 5월19일 면담, 혁명의 당위성과 혁명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다음 날 미국이 군사혁명위원회 명칭 사용과 5.16혁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했다.

1.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담판

“내 허락 없이 혁명을 했다고?”

“궤기군 당장 원대복귀시켜라”

매그루더는 성난 사자 같았다

“혁명을 누가 미리 신고하나?”

“우리를 부정할 거면 가겠다”

JP는 지지 않고 맞고함 졌다

1961년 5월 18일 저녁 어스름. 혁명의 성공이 확신으로 예감됐다. 육본에 있는 나를 미8군 정보장교 몰 대위가 찾아왔다.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 1900~88) 미군 사령관이 19일 오전에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했다. 매그루더의 첫 반응이다.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압의 의지를 드러내던 매그루더다. 나를 만나자는 건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청파동 집을 떠나 용산 미8군 사령관실

로 향했다. 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혁명군과 미군의 대좌 순간이다.

혁명을 준비하면서 나는 해외 주둔 미군의 행태를 조사·분석했다. 주둔국에 쿠데타나 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초점을 맞췄다. 미군의 행동 방식은 비슷했다. 쿠데타군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았다. 미군이 행동으로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매그루더가 5월 16일 오전 AFKN을 통해 “군사 쿠데타는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나는 겁나지 않았다.

오전 10시. 미8군 사령관실 문이 열렸다.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통역을 맡은 한상국 중령이 서 있었다. 정면 의자에 매그루더 사령관이 앉았다. 옆 소파 군인도 별넷 대장이었다. 한 달 뒤 매그루더의 후임자가 될 멜로이(Guy S. Meloy Jr.) 대장이었다. 나는 멜로이 옆에 앉도록 안내됐다.



1962.10.28 미국 공식 방문 중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 거주하고 있는 매그루더 장군(1961.5.16 혁명 당시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만나 즐겁게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매그루더장군이 ‘당신을 만나서 한국에 아주 젊은 애국자가 있는 걸 알았다’고 하기에 누구냐고 물으니 ‘바로 당신’이라고 해서 폭소가 터졌다. 이날 만찬은 JP를 주빈으로 매그루더장군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얼마 후 지역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스크랩하여 친필로 서명하여 보내 온 정성이 깃든 사진이다.

매그루더 장군은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뒷짐을 진 채 사무실을 이리저리 오갔다. 키가 크고 뚱뚱한 몸집이다. 내 눈에 그는 우리 안에 갇힌 성난 사자가 왔다갔다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획 돌아서며 소리를 쳤다. “내 지휘 아래 있는 군대를 이끌고 일을 벌였다고 무슨 혁명을 했다고, 당장 부대를 원위치로 복귀시켜라.” 나는 의도적으로 착 가라앉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만나자고 한 게 그런 협박을 하기 위해서였소?”

▶매그루더=“한국군 지휘권은 내게 있다. 당신들이 내 허락 없이 전방부대를 이동시킨 것은 마이어 협정 위반이다. 원 위치시켜라.”

▶JP=“우리는 레볼루션(Revolution · 혁명)을 한 사람들이다. 레볼루션을 하면서 어떤 녀석이 몇 날, 몇 시에 어떤 부대를 이끌고 혁명하겠다고 미리 신고하느냐. 그런 레볼루션도 있나.?”

나의 거친 반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매그루더는 “내 지휘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또 소리쳤다. 그때 나도 맞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우리 혁명을 부정하는데 그럴 거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나는 간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한상국의 통역은 열정적이었다. 매그루더와 나의 제스처 · 어조를 그대로 따라 하며 말을 옮겼다. 일어서려는 내 손을 지그시 잡고 자리에 끌어 앉힌 건 멜로이 대장이었다. “가지 마라. 우리가 오늘 만남 목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만나자고 했으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성난 사자 모양으로 협박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상의가 되겠느냐.” 그제야 매그루더 대장이 웃으면서 태도를 바꿨다. “부러 그랬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매그루더는 나보다 26살이 많은 역전노장이다. 내 배포와 스케일을 테스트한 것이다.

대화는 정상화됐다. “당신들은 어떤 사람인가. 왜 혁명을 하려 했나.” 매그루더는 근원적인 문제를 내게 물었다.

“나는 포트 베닝 미 육군보병학교에 입학해 미국을 좀 봤다. 근대화된 인사관리, 물자관리, 조직관리 방법을 배웠다. 이런 미국을 우리나라에 비춰 보니 나라 꼴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전부 뒤집어서 새로 해야겠다는 발상뿐이었다. 구 정치인들은 머릿속에 욕심밖에 없고 싸움만 했다. 당신의 조국처럼 우리도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이게 혁명을 한 이유다.”

미리 준비한 말은 아니었다. 나의 진심이였다. 1951년 여름 6개월간 미국에 유학하면서 풍요와 자유가 넘치는 비결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25살 대위 때다. 이런 배우고 생각이 답변의 바탕이 됐을 것이다. 이후 매그루더사령관이 사령관직을 이임하여 7월1일 한국을 떠날 때까지 혁명 과업의 수행을 위한 논쟁, 설득과 이해, 협력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으로 만났다.

〈중앙일보 증언록 '소이부담' <13>미 8군 사령관과의 담판 중에서〉

2. 주한 미대사, 미 CIA 설득

5월 18일 아침, 반(反)혁명 지도자 이한림 장군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혁명을 지지하는 야전군 12사단이 춘천 시내에 출동했다. 육군사관생도들이 혁명 지지 퍼레이드에 나서자 미국 측도 혁명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5월 18일, 자취를 감췄던 장면 총리가 은신처에서 나타나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는 5월 16일 선포된 계엄령을 추인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군사혁명위원회에 이양함으로써 5·16혁명은 성공하게 된다.

주한미군과 주한 미 대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16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5월 18일 미 중앙정보국(CIA)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어떤 저항도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무관심했으며, 장면 총

리의 저항 포기, 장도영의 이중 행동, 윤보선 대통령의 타협적 태도와 이에 기인한 합헌적 정권 이양, 이에 따른 군사정권의 정통성 강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5·16 직후부터 미국에선 나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로 보고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미국으로선 혁명을 주도한 내가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다크 호스’였다. 내가 중앙정보부장이 되자마자 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꾸민던 미 CIA 요원 크래퍼(가명)와 장면 총리의 정치고문이었던 위태커를 붙잡아 미국으로 추방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 내가 그들의 눈에는 반미주의자나 급진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로 보였을 것이다.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에 해롭가 될 수도 있다고 나를 판단한 듯했다. 일개 중령 출신이 뒤에서 혁명정부를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의심을 품었을 것이다.

미국 측의 대표적인 반JP 인사가 새뮤얼 버거 주한 미국 대사였다. 그는 줄곧 나를 감시하고 견제했다. 63년 2월 민주공화당 창당을 앞두고 버거 대사와의 갈등이 고조됐다. 미국 대사관에서 잉여농산물 공급을 중단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보릿고개를 앞두고 양곡 원조가 갑자기 중단된다면 큰일이었다. 나는 한밤중에 버거 대사를 찾아갔다. “미국대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럴 수 있느냐. 원조를 위해 선박으로 실어다 갖다 놓고 왜 밀가루를 풀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며 따졌다. 그렇다고 미국 측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 정면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항의해온 일은 없었다. 버거 대사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찾아가 나를 제거하라고 설득했다는데, 내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었다. 버거 대사는 외교관이 지 모사꾼은 아니었다. 혁명 직후부터 주한 미대사, 주한 미군 지휘관 및 미 CIA 요원들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혁명의 당위성



1961.10.28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방문한 버거대사를 박정희 최고회의의 부의장과 JP가 배웅하고 있다.



1961.12.14 버거 대사 부처를 초청하여 효자동관사에서 가진 석찬모임에서 만도린을 연주하고 있다.

과 혁명후 국가 경영 방향에 대해 설득해 나가자 나에게 대한 미국 지도층의 인식도 조금씩 고쳐졌다.

세월이 지나 71년 10월 국무총리 시절, 나는 월남을 방문했다.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병돼 한창 싸우고 있던 때였다. 그곳에서 주월 미국 부대사로 있던 버거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버거는 내게 “그땐 내가 한국 사정을 잘 몰라 당신을 의심했다. 마음으로부터 사과하겠다” 고 했다. 그는 “지금 보니까 당신이 수고를 많이 했다. 월남



1962.10.2 미 CIA 한국과장 일행이 중앙정보부를 방문, 김종필 부장과 국내외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에 파병해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국력을 키우지 않았느냐. 계속 소신껏 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뿐 결국 그도 나를 이해하게 됐다.

미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혁명 당일 오전 9시경부터 당시 미 CIA 실버지부장에 게 혁명 동기와 향후 혁명정부의 국가경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는데에 전력을 다했다. <중앙일보 증언록 '소이부담' (31)'미국의 리더들과 대화하다' 에서>

데이비드 딘 러스크 (David Dean Rusk, 1909 ~ 1994)

1945년 8월 육군성 참모진(대령)으로 근무할 때 한반도 미·소 분할 점령의 지역 경계를 북위 38도선으로 획정하는 안을 만들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수도 서울을 미군 관할 아래 두기 위한 적당한 분계선을 찾다가 동료 찰스 본스틸 대령과 급히 찾아낸 것이 38선”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였던 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의 신속한 개입 정책을 지지했다. 61년 케네디 정권 출범과 함께 국무장관에 취임했고 존슨 정부에서 베트남전 정책을 보좌했다.

5.16혁명을 일으킨 후 1년5개월만에 미국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국무장관과 공식 회담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혁명정부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케네디대



1962.10.29 딘 러스크 미국무장관과 회합하는 김부장.

통령 면담은 로버트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혁명정부의 당위성과 대한국 원조와 양국 협력관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음으로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혁명정부의 정당성과 지위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P 28~32참조)